



“대한민국 미래 산업이 한눈에” 광주시 국제그린카전시회 · 로봇박람회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엿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산업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로봇산업, 산·학·연 교류의 장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1개국 284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국제그린카전시회와 2019 광주국제 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첨단기술과 트렌드 변화, 로봇기술 등을 504개 부스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종합 전시회다.

올해 12회 짝을 맞은 국제그린카

20일부터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31개국 284개 업체, 친환경차 · IOT 산업 전시

전시회에는 기아자동차와 토요타, 닛산, BMW, 마스터자동차 등 국내외 완성차 브랜드들의 대표 친환경차와 관련 주변부품, 자율주행시스템, 커넥티드카 등 미래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151개 업체가 참여해 252개 부스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그린카전시회에 광주형 일자리로 준비하는 미래 50년의 광주 자동차산업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마련한다.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과 부품인증센터 건립, 수소에너지

기반 생태계 구축 등과 연계한 광주형일자리·친환경자동차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시민과 공유한다.

동시에 개최하는 2019 광주국제 사물인터넷(IoT)·가전·로봇박람회는 사물인터넷 홈가전을 비롯해 스마트 가전제품과 로봇산업 관련 제품 등을 전시하며 삼성전자, 광주공동브랜드 등 지역 대표기업 대거 참여를 포함, 국내외 133개 업체가 참가한다.

융합과 혁신이 키워드인 이번 박람회는 미래를 선도할 첨단기술과

혁신제품, 최신 트렌드 등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대형·명품 소형 가전 체험관, 의료로봇 기기, 지역 애용기 등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시뮬레이션 조종 체험 등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우수 제품의 해외시장 수출관료 개척을 위해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등 글로벌 해외 전문 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열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산업, 스마트 가전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며 “친환경 자동차산업과 로봇산업의 융합 발전이 광주의 미래를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알림 본사 새 주인 맞아 새롭게 도약합니다

제2창간 정신으로 정론구현에 앞장
로고 새로 제작...새로운 각오 다져

날로 사세를 확장해 가고 있는 호남신문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 도약을 꾀합니다.

호남 제일의 언론을 지향하는 호남신문은 제2창간의 자세로 정론구현을 위해 보다 진지한 자세로 독자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선 회사 로고부터 새롭게 제작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신문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우주를 형상화한 티원형 안에 '태양의 눈'이자 '사람이 뛰는 모습'을 이미지화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상하로 배치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 했습니다. 위쪽의 빨간색은 강인함과 정열을 내포하고 있으며, 아래의 노란색은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무한 역동성과 함께 사람이사는 넘새가 나는 신문으로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한자의 제호도 한글로 바꿔 보다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와함께 현재 동구 학동 사옥시대를 마감하고 상무지구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보다 공격적이고 내실있는 신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주와 더불어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호남신문이 더욱 비상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보다 힘찬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들 “사상 첫 준우승도 새 역사...큰 박수”

경기 시작 4시간 전부터 4000여명 모여 밤샘 응원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2019 국제 축구연맹 U-20 월드컵 월드컵 결승 경기를 하루 앞둔 15일(한국시각)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시민들이 밤샘 거리응원을 펼치고 있다.

디소 이취운 결과지만 준우승 만으로도 한국축구의 한 획을 그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2019 국제 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결승전이 열린 1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하늘마당·민중광장에 는 시민 4000여 명이 모여 밤샘 응원전을 펼쳤다. <관련기사 11면>

이날 결전을 통해 한국 축구 사상 첫 FIFA 주관 대회 우승을 노리는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기 위

해 모인 시민들은 목이 터지도록 '대~한민국'을 외쳤다.

영상 편목을 거쳐 전반 3분 김세운이 페널티 지역에서 골을 넣어내자 일제히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여 대표팀 애이스 이강인이 왼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키자 하늘마당은 기쁨의 함성과 박수로 가득했다.

우크라이나가 잇따라 매섭게 측면을 위협하자 시민들은 초조한 마음에 손을 모아 위기를 무사히 넘기길 기도했다.

전반 33분 우크라이나 수포리아하의 골로 실점하자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펜장이'를 연호했다.

후반전과 동시에 광주 출신 엄원상이 교체 투입되자 시민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후반 8분 수포리아하에게 두번째 골을 허용하면서 역전되자 곳곳에서 탄식이 나왔다. 후반 43분 차타이슈빌리가 문전 측면을 쇄도한 끝에 강한 슈팅을 성공시키자 잠깐 침묵이 흘렀다.

대표팀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만 경기는 1-3 패배로 끝이 났다. 시민들은 경기 종료 휘슬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박수로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민들은 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쓴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한국 축구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했다.

대학생 양승훈(22)씨는 “너무 아쉽다. 그래도 결승까지 진출한 대표팀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가 밝은 것 같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대표팀에게 고맙고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린 자녀와 함께 경기를 지켜본 황인목(36)씨는 “어린 친구들이 오 랜만에 한국축구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 같다. 최근 경기도 어렵고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U-20 대표팀이 전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큰 희망과 기쁨을 줬다”고 밝혔다.

하소영(22·여)씨는 “승리를 기대했는데 아쉽게 져서 안타깝다”면서도 “최선을 다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결승 진출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금의환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봉우 기자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수립 박차...기본사업계획 8월 승인 목표

전남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기본사업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고흥과 경남 밀양 2개 지역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최종 선정된 가운데 도는 그동안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혁신 밸리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선도 농업현장을 방문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산·학·연·관 추진단 31명을 구성했다. 또 혁신밸리 운영 법인 설립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실질단지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과 스마트팜 기술교류회, 세미나, 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기본 사업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고흥군청 팔영산홀에서 사업추진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실현가능한 기본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한 전체적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단과 청년창업보육,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기능이 집약된 기본사업계획을 세워 8월까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홍석봉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도 차원에서 수립된 예비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전국 규모로 사업추진단을 확대 구성했다”며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추진단과 분야별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세밀하고 구체화된 사업 계획을 세워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백**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 MBC 일화드라마 특별프로그램 조장풍 중 >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노동자의

백이

되어 드립니다

공공연맹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해 정부부처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합니다. ★★★★★
※ 2019년 노정협의 주요 안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평가제도 개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폐기 등
- 지방정부와의 노사정협의를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서울시, 대구시 등 노사정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노조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원합니다.
-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조합 지방정부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5만 명의 공공부문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국가공공기관노조	한국농어촌공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주택관리공단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조, 도로교통공단노조 등 30여개
지방공공기관노조	대구도시공사노조, 인천도시공사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등 50여개
공무직노조	경찰청주무관노조, 전국통계청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충북도청 공무직노조 등 20여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직가입상담

문의 | 02-6277-2280 이메일 | fkp000@gmail.com 홈페이지 | www.publicunion.or.kr